



2008년 전세계가 경제위기라는 깊고 어두운 터널에 빨려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가파르게 뛰어오르는 환율 변동의 숫자나 자유 낙하하는 주식시장 그래프가 아니었다. 80년 만에 찾아온 깊은 위기라는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줄곧 떠오르는 낱말은 세 가지였다. 세계화, 미국, 케인즈.

대부분의 커다란 사건이 그렇듯이, 작금의 세계 경제위기 역시 다차원에 걸친 구조의 붕괴가 중첩되면서 진행되고 있다. 짧게는 영국의 대처 정부(1979년)와 미국 레이건 정부 출범(1981년)과 함께 본격화되었던 신자유 세계화 흐름에 대한 반성과 역류이다. 자유시장의 세계적 확산을 설파하던 중주국에서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8천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이 재빨리 편성되고, 이 예산은 낙엽처럼 흔들리던 부실 금융기관들을 사들이거나 지탱하는 데에 쓰였다. 달리 말해 주택 가격의 하락보다도 빠른 속도로 세계화의 교리는 중심부에서부터 폐기되었다.

결국 포스트 2008년의 세계에서 중심 화두는 위기 탈출을 위해 정부가 어떻게, 얼마나, 언제까지 시장경제에 개입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시장자유주의를 설파하던 미국,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에서도 위기의 해결사는 각국 정부이거나 혹은 정부 간 공조와 협



력이 되었다. 각국의 재무부와 G20회의는 위기 탈출의 해결사로 등장하였다. 이제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철학을 유려한 언어로 풀어놓았던 케인즈의 사상은 사후 50여년만에 부활하고 있다. 각국 정부와 지식인, 정치인들은 케인즈의 개입 철학, 효과적인 정부 역할을 다시금 떠받들게 되었다.

신자유 세계화의 역류와 케인즈의 부활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지난 10여년 간 한국사회에서 진행되었던 세계화를 돌이켜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했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선언에서 비롯된 한국형 세계화는 사실 바깥 세계의 흐름을 재빨리 따라잡아 온 한국사회의 오랜 습관의 발현이었다. 시민사회의 한 편에서 저항이 없지 않았지만 정부나 지식인들에게조차도 세계화의 의미와 배경보다는 속도와 수용이 더 큰 관심거리였다. 외견상 매우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세계화가 진행된 듯하지만, 심층의 의식구조는 오히려 바깥의 흐름에 대해 수동적이고 반응적이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최근 바깥 세계에서는 신자유 세계화의 역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일시적인 조정의 국면인지 아니면 시장 만능주의를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의 원칙으로 순차시키는 진화 단계로의 진입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중요한 것은 수동적 따라잡기 식의 세계화가 허상이었음을 직시하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한국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다. 1990년대의 수동적이고 맹목적인 세계화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구제금융 사태라는 혹독한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 불과 10여년 전의 일이다. 이 혹독한 경험은 최근의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약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국제사회의 관여와 기여를 높이려는 한국외교, 다원화되는 한국사회와 정치 등의 제반 영역의 문제를 잘 아우르는 세계화의 밑그림은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나아가 보다 통합적이고 보다 국내문제와 잘 교직되는 미래 한국의 세계화가 21세기형 세계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8년 위기 이후의 대안 모색을 서두르기보다는, 1990년대의 수동적이고 반응적이었던 세계화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였다. 과거에 대한 진지하고도 체계적인 성찰이 미래의 주체적인 설계를 위한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EAI는 이번 작업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문제의 공유와 참여를 구하



였다. 기존에 EAI를 통해 활동하던 정치, 외교 및 안보, 경제,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다문화, 시민권, 보건,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전문가들의 참여가 절실하였다. 이에 뜻을 함께하는 전문가들이 기꺼이 관점과 판단을 공유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고 참여해 주었다.

이렇듯 이번에 발표하는 우리의 작품은 기존의 세계화론들과는 분명하게 차별되는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제1기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계화를 주체적으로 설계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담고자 하였다. 보다 다층적이고 다면적이며 복합적인 세계화의 흐름을 읽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전통적인 문제 영역과 아울러 새로운 문제들을 진지하게 대면하고자 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역동적인 세계 속에서 건강한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공유하고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0년 11월
이숙중 · 장 훈